

민주연구원, ‘대한민국 대전환’ 4차 토론회 개최... “K-컬처, ‘하청기지’ 벗어나 ‘매력성장’의 주역으로”

- 이재영 원장, “문화는 더 이상 경제의 장식이 아닌 본체... 로컬 문화 생산 생태계가 핵심”
-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종속 탈피 및 금융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등 구체적인 해법과 지역 소멸 대안으로 ‘소비’ 아닌 ‘생산’하는 로컬 전략 제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월 2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의실(306호)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연속토론회(4회):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을 개최한다.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한정애),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손명수 국회의원)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4대 축 중 하나인 ‘매력성장’을 구체화하고, K-컬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도약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부장, 조영신 동국대학교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정희준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 장현정 호밀밭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문화가 밥 먹여주는 시대... 플랫폼 종속 막아야”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일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대로 문화는 더 이상 경제의 부수적인 장식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

력이자 미래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금 우리 콘텐츠 산업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오늘 논의하는 ‘매력성장’은 단순한 문화 향유를 넘어, 우리 기업과 창작자가 지식재산권을 주도적으로 확보하고 그 부가가치가 뷰티, 푸드, 관광 등 연관 산업으로 낙수효과를 일으키는 경제 생태계 복원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안정한 창작 환경에 놓인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매력성장의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

현장의 해법: IP 금융 전환, 생산하는 로컬, 광역 교통망 혁명

이날 발제와 토론에서는 콘텐츠, 로컬, 관광, 정책 등 분야별로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혁신적인 제안들이 쏟아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부장은 ‘콘텐츠산업을 통한 매력적인 성장’을 주제로, 한국 콘텐츠 기업의 고질적인 자금 부족과 글로벌 OTT에 대한 IP 종속 문제를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제작사가 IP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작비를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연관 산업(푸드, 뷰티 등)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IP 권리를 분산 소유하는 ‘K-IP 가치공유 펀드’ 구성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콘텐츠 흥행 수익을 투자자와 제작사가 공유하고,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을 이끄는 새로운 수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애프터 넷플릭스』의 저자인 조영신 동국대학교 대우교수는 오징어게임, 케데헌 등으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콘텐츠 소비가 외국 플랫폼에서 이뤄질 때, 한국의 창작생태계가 위협할 수도 있다면서 어찌보면 현재 상황이 외화내빈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사회 통

합형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주문하며, 문화 행정의 관료주의 타파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정희준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관광 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교통망'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과 지방을 잇는 횡축 교통망이 부재해 지역 간 교류와 관광이 단절되어 있다"며, 수도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과감한 결단을 통해 격자형 교통망을 구축해야만 지방 관광이 살아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장현정 호밀밭 대표는 '로컬의 해법은 소비 아닌 생산'이라는 주제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지금까지의 지역 정책은 축제나 이벤트 같은 일회성 '소비'에 치중해 왔다"고 비판하며,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라이프스타일과 지식, 문화를 만들어내는 '생산자'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문객 수보다 지역 내 '생산자 생존율'을 핵심 지표로 삼고, 지역 내에서 가치가 순환하는 '로컬 문화패스' 도입 등을 제안했다.

■ “입법과 예산으로 매력성장 뒷받침할 것”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중 문화 부문 실행 계획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K-컬처가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를 잇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손명수 문화예술특별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문화분야 금융 지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2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창작자 중심의 공정 거래 법제화'와 '지역 생산형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을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지방선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끝]

연속토론회 4

대한민국 대전환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1월 29일(목) 14시 /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306호)

좌 장 손명수 국회의원(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발 제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연구본부장

토 론 조영신 동국대학교 대우교수

이원재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정희준 부산관광공사 전사장

장헌정 (주)호밀밭 대표

1 수도권 1극 체제와 단절,
지방 주도 성장
1월 20일(화) 15:00

2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1월 22일(목) 14:00

3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1월 27일(화) 14:00

5 평가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2월 5일(목)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306호)

